

## 완성된 성막 (출애굽기 40:1-16)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성된 성막이다. 완성된 성막이 그리스도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성막을 완성하고 세우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성막이 있으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는 기록이 나온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 바란다.

우리는 오늘도 한주를 시작한다. 성도는 항상 새 출발이다. 오늘도 언약 잡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고 항상 새출발이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 믿음중의 하나이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끝난게 하나도 없다. 우리 중에는 혹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전부, 때로는 낙심되어 힘들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끝난게 아닌가 싶을수도 있으나 그건 내 생각일 뿐이다. 주님이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기 까지는 모든 것은 현재 진행형일 뿐이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을 때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성경은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려움을 다 당했는데 항상 다 과정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언약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잡은 이 백성들 중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잡고 새출발 해야 한다. 그리고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한다. 237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사명이 아니고 답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과 생각속에 바르게 적용을 했다.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과 생각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불신앙의 소리가 나왔다. 믿음의 소리가 안 나오고. 그들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 속에 적용 되었으면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 저녁에 밤새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팀사역 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다. 울게 아니다. 속은거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팀사역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된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시대의 가나안 237이 내 생각과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237,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도록 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약잡고 출발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 바란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인생의 행복이 있다.

### 1. 완성된 성막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드디어 성막을 다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성막 전체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 이것이 광야를 가는 하나님의 준비이다. 성막은 광야를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광야를 갈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광야고 뭐고 상관 없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하며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해의 첫날에 이 성막을 시작하라고 하였다. 너는 첫째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했다. 회막이라는 말은 같은 막인데 모이는 것인데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회막은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첫째달 초 하루에 시작하라고 했다. 이 성막이 네 인생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이다. 너는 첫날 이 성막으로 시작하라는 말이다. 너의 인생의 첫날을 성막으로 시작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다. 그러면 너는 승리하고 정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면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성막이다.

여기 보면 인생에 진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눌러서 숨을 못 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이 완성된 성막 그리스도로 살면 된다. 인생 정복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첫날 첫해의 첫날을 성막으로 시작하라고 하신 것이다. 불신앙의 소리 듣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너의 인생의 첫날을 성막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해마다 그 첫날을

이 성막으로 시작하라는 메시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성막을 꼭 만들어 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인데, 그 첫날을 첫째 첫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정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읽어보면 브살렐, 호솔리 같은 사람에게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셨는데, 그 성막을 만드시는 속도도 조정하셔서 다 되었을때가 첫날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첫날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 시작하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이유는 그 전에도 봤지만 첫째는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당시의 성막은 전우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장소가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끝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말씀 못 받으면 끝난다. 예수님 오시기 전 4백년간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다 바리새인 되어 버린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가 얼마전에 한번 본 말씀인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하셨다.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를 것이라고 하셨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말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니까.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그것을 잡고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제자 일어난다고 믿는다. 많은 다민족 제자, 렘넌트 제자 분명히 일어난다고 기도 할때마다 믿는다. 많은 지교회 제자, 팀사역 전도제자, 중직자, 산업인 제자 일어난다고 기도할때마다 믿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다. 또 있다. 여기 저기서 치유의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나님 나는 믿어요 라고 기도한다.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형태의 기도였다. 이제는 주세요가 아니고 믿습니다이다. 그리고 믿어지고 소망이 딱 들어왔다.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렘넌트 운동, 진짜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한다. 요한복음 21:15-18 절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다. 그리고 237, 선교운동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백한다. 분명히 남미 끝까지, 미국 끝까지, 세계 끝까지 하나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내게 언약이 딱 되었다. 그 언약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계획대로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셨다. 내 발의 등이면 어디로 갈지를 안다는 것이다. 내 인생길의 빛이니가 그거 따라 가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거기서 나에게 말할것다, 그것이 성막이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없이는 안된다. 더구나 이 길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삼일만에 다 죽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성막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막 먼저 지으라고 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받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너무 중요하다. 예배를 예사로 생각 안하겠지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배한다면 생각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땀 시작하면 예배 시작이다. 이 시간 십분 전에는 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함께 찬양하고,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도 더 된다. 예배를 예사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만남을 예사로 생각하고 말씀 받을 생각을 안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된다. 사실은 예배 생명 걸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안 받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드려야 한다.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끝났다. 그냥 은혜받고 끝나면 안되고 한주간 붙잡고 살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당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도 예배이다. 아마 다른 모임은 하나님 눈에는 안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다른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는가? 못했는데 예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예배를 예사로 드리면 되겠는가?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다. 마음을 담으면 더 많이 받는다. 예배 안드리고 말씀 안 받으면 몇 개월 지나 만나면 대화 안된다. 이상해진다. 이처럼 예배는 너무 중요하고 말씀 받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 만나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첫날부터 너 인생 시작을 이것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성막 안에는 이것 말고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 많이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전부가 성막에 다 있다. 그 안에 속죄소 있다. 죄사함

못 받으면 다 끝인데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 죄사함 받을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언약계 있다. 인생 언약계만 따라가면 문 다 열린다. 그리고 향로가 있다.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지, 이것이 향로이다. 그리고 무교병놓는 상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가? 등도 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 빛이 필요한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는 메시지이다. 우울증은 마음이 어두운 것이다. 빛이 들어오면 낫는 것이다. 그리고 물두멍 있다. 몸도 씻고 죄도 씻고 예배드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뜰도 있다. 나그네를 위하여,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전의 뜻을 준비했다. 나그네, 237이고 어린아이, 렘넌트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뜰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성전 하나로 니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것 하나 있으면 다른 것 필요 없어. 이것이 성전이다. 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보혈이다. 성경은 이 언약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문제 해결할수 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다. 니가 그리스도만 언약으로 잡으면 인생 모든 문제, 저주로부터 나올수 있어. 너 영적 문제 있으면 언약 잡아 반드시 사단은 박살난다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산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모든 역사 정복했다. 그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상관 없다. 노예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 버리고 뒤집어 쳐버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교회사에, 성경 이후에 시대에도 꼭 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있나는 것이다. 이 성막이 너에게 뭐냐? 그리스도가 너에게 뭐냐? 내가 너에게 누구냐, 그것이다. 성막 없으면 광야를 못 간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성막 없이는 광야 못 건넌다. 왜냐면 성막 없으면 만나 안 내려온다. 성막도 없는데 왜 반석위에 물이 왜 나오고 사람을 왜 살리는가? 우리도 인생을 그래서 성막으로 끝내야 한다. 너무나 뻘뻘한데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 성막이 있다, 언약이 있다 그러면 메추라기 날아와서 내가 먹을때까지 안 간다. 구름기둥, 불기둥 없는 데 그 광야에서 사는가? 밤되면 너무 추워서 얼어죽는다. 불기둥 없으면. 그런데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오는가? 성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언약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 해야 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시는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매일 같은 것을 해야 한다. 내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이다. 멀쩡하게 있는 바위에서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구름기둥 불기둥,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는 괜찮아. 이것이 언약잡은 사람의 삶이다. 이런 것을 한 사람은 전부다 그 약속 그대로 인생에 나타난다. 다니엘, 언약 잡았다. 뜻을 정했다. 나는 안해. 그리고 그 언약 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너의 인생의 첫날을 언약으로 시작해라. 그 날짜에 맞춰 성막 만드는 속도를 조정해주셨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열가지 재앙을 다 내리다가 마지막에 피를 바르는 그날 나오도록 맞추신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시간표를 못 벗어난다. 그 시간표를 맞춰서 첫날에 너는 이제 시작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성막이 그리스도이다. 언약 잡고 바란다. 이런 저런 소리 하니 말고 언약을 잡아라. 그리고 안되면 발버둥을 쳐라. 언약을 누리는데에는 왕도가 없고 지름길이 없다. 안되면 울기도 하고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한다. 아주 고상하게 우아하게 믿고 싶으면 그것은 상당히 진행된 후에 그렇게 하면 된다. 싸워야 된다. 사단은 아주 더럽고 비겁하게 오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 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답이 있으니까, 답 없으면 소용없지만 답이 있다.

## 2. 세상의 제사장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다 죽는다. 그들을 죄의 저주에서 건지는 일이 끝나면 예수님 오셔서 종 치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준이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다.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한다. 세상에서는 VIP가 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말고 VIP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세상 따라 왜 사는가? 심판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누구나 심판 받는데 하나님이 VIP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3절에 아론을 불러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부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을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

한 것이다. 15절에는 아들들도 다 불러서 씻기고 기름 부어서 제사장 역할 하라고 했다. 마지막에 보면 영영히, 영영히 내게 제사장 되게 하라고 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린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면 지은 죄를 사할 길이 없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양을 가져와서 아무리 경성껏 예배 드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일반인이 지성소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무자비한 사람들을 어떻게 믿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오직 예수라는 것이다. 아무나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서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맘대로 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아브라함 같은 족장시대에는 자기들이 직접 했다.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나왔다. 그 이후에는 안된다. 그러면 제사장의 존재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제사장이 없으면 다 지옥이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리스도인 것이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못 받는다. 제사장 없으면 죄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 못만난다. 이 제사장이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리스도 삼직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제거하는 제사를 드릴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아무나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자이다. 나는 재물을 가져가고, 재물은 내가 준비하고 이 제사를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명한자, 제사장이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대신 죽으심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아무나 가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쓸데 없이 죽은 것이다. 오직 예수의 죽음 외에는 너 죄사함 받을수 없다는 것을 구약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니가 너의 재물대로 맘대로 제사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이 영영히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자, 오직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제사장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을 죄의 저주에서 건지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2:9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의사이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고칠수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시간표이다. 그 사람이 이 말씀 들으러 오느냐 하는 시간표 문제이지 말씀으로 다 고칠수 있다. 물론 내 맘대로 하는건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받고 고치실 시간표와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계획만 있으면 누구든지 고칠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 어쩌다 영적문제 있는 사람을 만난다. 전에는 지금과 답이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한 차이이다. 영적 문제가 빨리 안 낫는다 굉장히 씨름해야 한다. 어떤때는 화도나고 고생만하는 것 같고 되지 않는 일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 사람이 나에게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영적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안테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나안이다. 응답만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 6:33은 너희가 응답만 바라지 말고 237로 가라는 말씀이다. 이것 잘 안된다. 왜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안 바꾸게 하려고 발악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도 잘 안잡히니까 쓰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줄 믿는다. 성경에 예를 많이 들어봤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가나안, 237을 향해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이다. 한번만에 안될 수도 있다. 또 정하는 것이다. 또 정하고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될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나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면된다.

우리가 아브라함 기록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12-22장인데 흐름이 단이다. 마음에 생각을 굳히고 나도 이것으로 내 인생에 도전한다. 이런 축복이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란다. 성전을 가지고 이것으로 시작하라고 했다. 해의 첫날 이것으로 시작하라. 너의 인생을 이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으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줄 믿는다.